

애플 CEO 스티브 잡스의 성공 비결은?

“같은 사물을 보지만 다르게 생각한다”

서예공부 등 경험 통해 독창적 아이디어 창조

‘스티브 잡스는 다르게 생각한다’

최근 ‘스티브 잡스 혁신의 비밀(The Innovation Secrets of Steve Jobs)’이라는 신간서적을 낸 카민 겔로는 20일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 인터넷판에 기고한 글에서 애플 전직원과 전문가 등을 인터뷰한 결과 애플의 최고경영자(CEO) 스티브 잡스는 다른 기업가들과 “생각을 다르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겔로는 잡스가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테크닉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심리학자들은 그러나 이 테크닉이 새 상품 개발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기고문에 따르면 스티브 잡스와 그의 오랜 친구인 스티브 워즈니악이 1000달러로 회사를 설립하면서 컴퓨터는 단순하고 쉬워야 한다는 잡스의 비전이 담긴 ‘애플’이라는 사명을 갖게 된 일화를 보면 스티브 잡스가 생각하는 방법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워즈니악은 오리건을 방문한 잡스를 공장에서 태워 자신들이 ‘애플 과수원’이라고 불렀던 곳으로 돌아오던 고속도로상에서 잡스가 사명을 ‘애플’로 하자고 제안했다고 소개했다.

잡스의 흥미진진한 아이디어는 서예 공부나 인도 수행자 마을 아슈람 방문, 메이시백화점의 주방용품 판매코너 등 가장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장소와 경험에서 나왔다. 잡스는 스스로를 다양한 경험에 노출시켰고, 그런 경험들은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다.

하버드대는 6년간 기업 임원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혁신자와 비혁신자를 가르는 첫번째 기술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각각 다른 분야의 문제나 아

이디어들을 성공적으로 연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는데, 이는 잡스가 15년 전 기자들에게 말했던 “창조성이란 사물들을 연결하는 것”이라는 명제를 확인해 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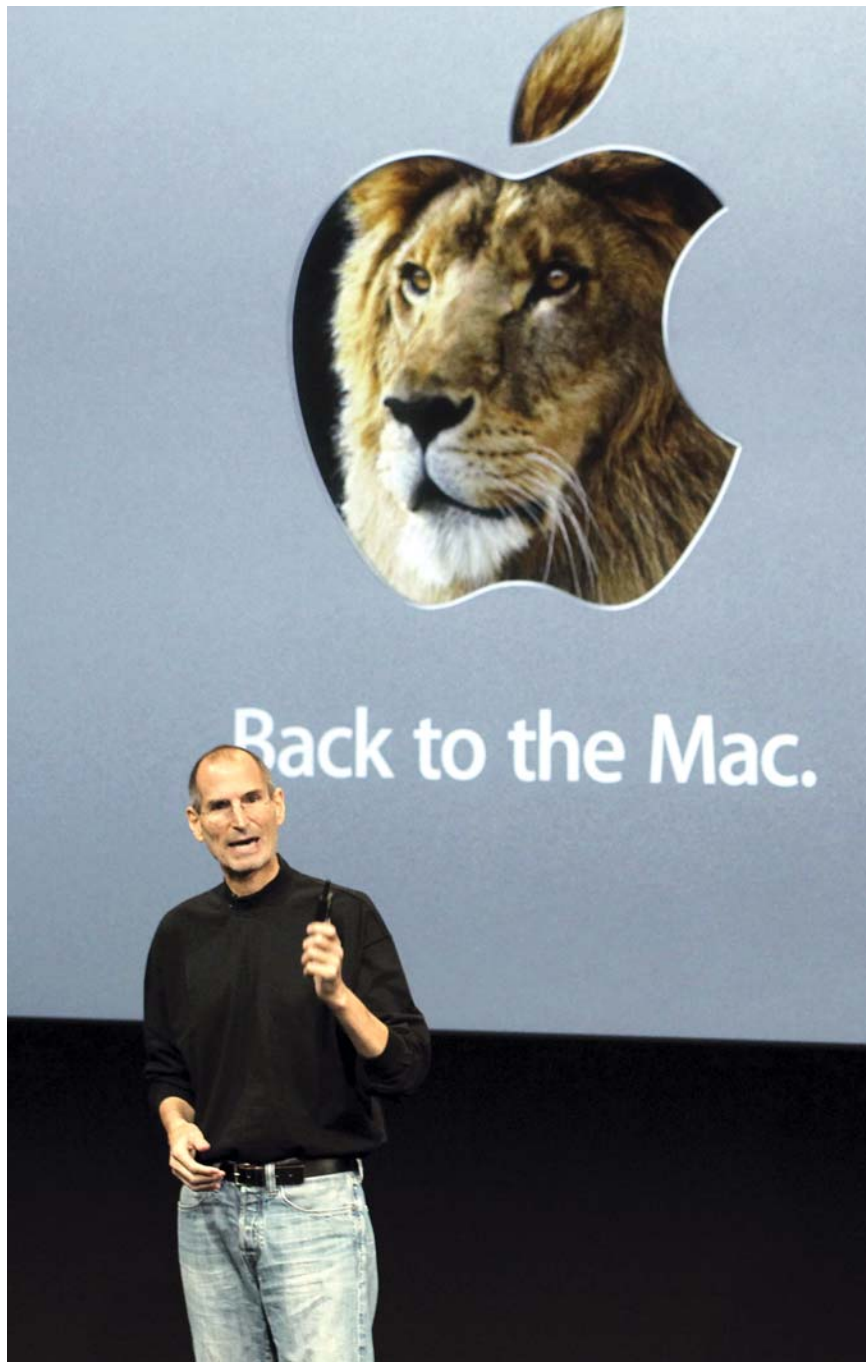
결국 잡스는 다른 지도자들과 같은 사물을 보지만 다르게 인지한다. 다르게 인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생각과 장소, 사람들에게 자신을 노출시켜야 하며, 이 같은 경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 놓칠 수 있는 것들을 연결시켜 주도권을 도와준다.

잡스는 실제로 자신의 모든 생을 그렇게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대학을 중도에서 포기함으로써 서예처럼 정말 흥미를 가지고 있던 수업을 들을 수 있었으며 실제로 서예는 이후 잡스가 아름다운 활자체를 가진 맥 컴퓨터를 디자인할 때 도움을 줬다.

또 애플Ⅱ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첫번째 개인용 컴퓨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 것도 메이시백화점 주방용품 코너에서 영감을 얻은 데 따른 것이다.

애플스토어를 처음 시작할 때도 의도적으로 컴퓨터산업 종사자 대신 미국 대형마트 ‘타깃’의 전 임원 론 존슨을 고용했다. 잡스와 존슨은 최고의 고객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결론을 내린 포시즌호텔을 모방해 애플스토어에 돈을 받는 ‘현금수납원’(cashier) 대신 ‘컨시어즈’(호텔의 안내인, concierge)를 설치했다.

겔로는 “스티브 잡스만이 다르게 인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쉽지는 않지만 누구든지 자신을 새로운 경험에 노출시키고 일반적인 문제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기 위해 노력하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스티브 잡스가 20일 아이패드와 아이폰의 기술을 적용한 신형 노트북 컴퓨터 ‘맥북 에어(MacBook Air)’ 공개행사에서 내년 여름 정식 공개 예정인 새 운영 소프트웨어 ‘라이언(Lion)’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트나 화산 수수께끼 풀리나



확자들 사이에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의 에트나 화산 생성 과정이 최초의 액체 역학 모델로 실마리를 찾은 것으로 보인다

유럽 최대의 화산인 에트나 화산과 주변에 이블레라 화산대가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관해서 많은 연구가 나왔지만 생성 시기와 원인, 역학작용 등에서는 아직 밝혀진 것이 없다.

호주 모나시 대학의 지구물리학자 바우터

스 웰라트 교수는 에트나 화산이 판운동에 의해 생긴 것이 아니라 지구 맨틀층으로 서서히 가라앉는 이오니아관 가장자리로 상부 맨틀층의 물질이 녹아 흐르면서 압력이 줄어들어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지올로지 저널 최신호에 발표했다.

에트나 화산은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화산 가운데 하나로 거의 언제나 활동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8월에도 폭발해 분화구 상공 800m 까지 화산재를 분출했다. /연합뉴스

KT ‘무궁화 위성 6호’ 12월25일께 발사

KT는 내년 수명을 종료하는 무궁화 3호를 대체할 무궁화 위성 6호의 위성체 제작을 완료, 12월 25일께 발사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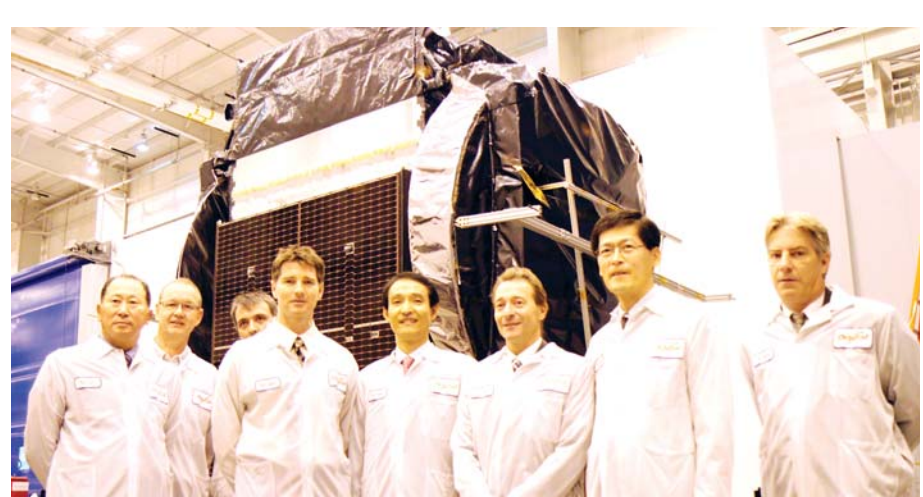
프랑스 ‘TAS’사와 미국의 ‘OSC’사가 공동 제작한 무궁화 위성 6호는 고화질(HD) 방송에 대비, 성능을 대폭 개선한 30기의 위성 중계기를 장착, 고품질 위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수명도 기존 위성 대비 25% 늘린 15년으로 늘었다.

김성만 네트워크부장은 “한반도 전체

를 아우르는 위성방송 시대를 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이 보유한 정지궤도 위성 수가 5개로 늘어남에 따라 우주 산업 강국 도약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KT는 현재 무궁화 위성 3호, 5호 및 공동 위성 무궁화 위성 7호를 보유하고 있다.

조립 및 테스트를 완료한 무궁화 위성 6호는 내달 25일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로 옮겨진 뒤 프랑스 발사체에 탑재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KT, TAS, OSC 관계자들이 미국 워싱턴 D.C. 현지 공장에서 위성 6호 조립체를 뒤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T제공>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가 2014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열리고 있는 제18차 ITU 전권회의에서 우리나라의 2014년 제19차 ITU 전권회의 유치가 공식 결정됐다고 21일 밝혔다.

한국서 2014년 ICT 올림픽 열린다

ITU는 20일 오후(현지시간) 차기 회의 개최지로 한국을 명시하는 결의서를 192개 회원국 동의를 거쳐 공식 채택했다. 2014년 ITU 전권회의의 개최지는 방송

통신위원회와 ITU 사무총국 간의 협의를 거쳐 내년 중 결정된다.

ITU 전권회의는 4년마다 개최되는 정보통신 분야의 최고 정책결정회의로,

1865년 ITU가 창설된 이후 19차례 개최됐다. 주로 유럽(11회)과 미주(5회)에서 열렸으며, 아시아지역에서는 1994년에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게 유일하다.

2014년 ITU 전권회의가 국내에서 열리게 되면 세계 192개국 120명 이상의 장차관을 포함한 2천500여 명의 정책결정자, 전문가 등이 3주간 국내에 머물게 된다. /연합뉴스

광주CBS 1961-2011 창립 50년 “광주CBS 역사50년, 미래50년 비전선포 기념”

월드 DIVA! 로즈장

뮤지컬 / 팝 오페라 콘서트
 뮤지컬 캐츠 Memory 전세계 1위
 2010 광주비엔날레 홍보대사

2010. 10. 31(일) 오후 3시 / 7시 30분
 광주 문화예술회관 대극장
 문의 062)951-3361
 예매처 티켓링크 / 인터파크 / 옥션티켓

주최 광주CBS

협찬 KJB 광주은행 SK Telecom woorio 무등장례식장

전 세계인이 감동한 천상의 목소리
 브로드웨이가 광주에 오다!